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박차

익산시, 기재부 국가예산 최종 심의서 확정

익산시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국가 예산 최종심에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재부 단계에서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43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 악취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한다.

이 사업은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도록 탈취설비를 교체·개선에 나선다.

대상 사업지는 익산공공하수처리장

과 합열·복부·금마·여산 하수처리장, 분노처리장, 제1·2 중계펌프장 등 8개소다.

시는 오는 2022년 악취개선사업에 착수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본격화한다.

해당 지역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재탄생시켜 혐오시설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처리장별 기존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악취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해 왔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목천동에 위치한 익산공공하수 중계3펌프장 탈취기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악취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위생 기능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2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아 '청춘랜드 기념행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호아홈텍(대표 박진철) 온돌난방 설치공사 기증식을 가졌다. 10월 13일 오후 10시 30분, 호아홈텍(대표 박진철) 온돌난방 설치공사 기증식을 가졌다. 10월 13일 오후 10시 30분, 호아홈텍(대표 박진철) 온돌난방 설치공사 기증식을 가졌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호아홈텍 온돌난방 설치공사 기증식

군산시는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인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제2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아 '청춘랜드' 기념행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호아홈텍(대표 박진철) 온돌난방 설치공사 기증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시설 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약 80평 규모의 소강당은 어르신들의 요가, 한국무용 등 건강프로그램과 소규모의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다. 사방방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공간은 특히 동절기에 차가운 바닥으로 인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기증은 ㈜호아홈텍에서 바닥 전체에 호아온돌을 설치해 한겨울에

도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탈바꿈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영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노인복지관 운영위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 기증식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준 ㈜호아홈텍 관계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을 중심으로 청춘랜드 대면활동과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비대면 행사를 뜻깊게 준비해 주신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도의원 간담회·지역현안 해결 맞손

민주당 당정협의회... 정치권 공조 지속 강화

군산시는 시장 주요현안 해결 및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나기학 김종식, 조동용 문승우 도의원과, 황철호 군산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500억원), ▲군산시량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총사업비 586억원), ▲군산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총사업비 66.2억원),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총사업비 20억원) 등 도비 확보 필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휴먼센터 유치 등 지역현안에 대한 쟁점 설명이 이어졌고, 전북도의회



군산시는 시장 주요현안 해결 및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황철호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도비 확보 등 지역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해 금번 간담회

를 개최했다"며 "당면한 지역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준비

군산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상자인 서수면 신장마을과 옥산면 외류마을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주민 체감형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 70%, 도비 3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

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4년간 마을당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하게 된다.

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9월 24일 예비계획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주민 상향식 사업의 본질에 맞

게 마을주민이 스스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취약한 부분을 선별한 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예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가 2022년 1월경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라북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22년 3월경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2021년 청원경찰 공개 채용 실시

군산시는 2021년 청원경찰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원경찰 채용 인원은 3명으로 2021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합격자는 2022년 1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군산에 계속 거주했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군산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여야 하고, 신체 건강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모두 0.8 이상이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2~14일, 필기시험은 오는 23일, 체력시험은 29일에 각각 실시하며, 면접은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 시험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한국사과 청원경찰법(일반상식 포함) 과목으로 평가하고, 2차 체력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 종목(10m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으로, 마지막 면접은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정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응시생들은 응시자격이나 시험 일정 등 공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평생학습관 2기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

군산시평생학습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주 과정으로 '한국수어(수화)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기초반(수어 처음 배우는 과정)과 심화반(과거 수어 교육 경험 과정)으로 구분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단어와 표현을 익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집인원은 총 24명(기초반 12명, 심화반 12명)으로 수강신청은 15일 18시까지 홈페이지(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에서 선착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재비 5천원은 별도 납부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어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2021년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 추진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교통량 조사를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개 읍·면 지역에서 지방도 12개 지점과 군도 5개 지점인 17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방도 72명, 군도 30명 총 102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조사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를 시간별·차종별·방향별로 조사하게 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조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사지점 관측소별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조사원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 방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향후 교통량 통계 분석에 따라 도로 정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